

정동채, 서구청장 洞순방 동행 논란

자문위원장 자격 사전 선거운동 논란...현역 의원 견제 분석도

최근 광주 서구청장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된 정동채 전 의원이 구청장의 동(洞) 순방에 함께 나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구청에 따르면 김종식 서구청장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17개 동을 순방하며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동(洞) 생활현장 순회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청장의 이번 순회방문에는 서구청장자문위원

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도 동행한다. 정 전 의원은 구청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14일 구청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구청장과 함께 동 순방을 하는 것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이는 등 지역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정 전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서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정 전 의원을 구청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의 자리에 정 전 의원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조영택·김영진 의원)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김 청장과 정 전 의원의 ‘동반자적 행보’에 대해 김 청장이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정 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전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과 달리 의정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의 생활현장 순회방문 동행은 사실상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조영택 의원은 설을 전후해서 자신들의 지역구를 돌며 의정보고회를 가졌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제피해자경제조합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협상 기금 마련을 위한 ‘10만 희망 릴레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시민모임’ 10만 희망 릴레이 돌입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일제피해자경제조합은 15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국민 10만명이 1000원씩을 투쟁기금으로 모금하는 ‘10만 희망 릴레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등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8일간의

1인 시위와 13만5000여 명에 달하는 항의 서명운동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65년 만에 협상장으로 끌어냈다”며 “하지만, 역사적인 이번 협상이 대일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적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본이 근로정신대 피

해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 99엔을 지급한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공개심리가 오는 4월에 재개될 예정”이라며 “10만 희망 릴레이는 신 독립군 10만 명의 힘으로 잠자는 일본의 양심을 다시 깨우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줄속 처리된 시교육청 조직개편안, 왜?

일정 앞당겨 ‘원 포인트’ 본회의

줄속 개편과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조례안이 애초 일정보다 사흘 앞당긴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됐다. 지난 14일 상임위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지 하루 만이다. 애초 제194회 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는 개회식인 지난 8일 한 차례 열렸고, 폐회식인 18일 한 차례 더 예정됐지만, 이날 본회의는 교육청의 조직개편 조례안 1건만을 처리하기 위한 ‘원 포인트’ 회의였다.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이날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처리한 이유는 3월 인사를 앞두고 시간상으로 촉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 상임위 통과 하루 만에 조례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 인사단행 1주일 전에 인사예고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면 인사를 단행하는데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줄속개편과 위인설관 논란을 빚어온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 정도로 급조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미호 해적납치 1년만에 케냐 도착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4개월만에 풀려난 금미호305호가 15일 케냐 몸바사항에 입항했다. 금미호는 지난 9월 해적 본거지인 소말리아 하라레데항에서 풀려난 뒤 유럽연합(EU) 소속 핀란드 군함의 호위 아래 운항을 재개, 석방 6일만에 몸바사항에 도착했다.

김대근(54) 선장과 김용현(68) 기관장 등 한국 선원 2명을 비롯한 43명의 선원은 건강에 큰 지장이 없는 모습이었다. 한국 선원들은 케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휴식을 취한 뒤 본인 희망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현지에 머물 예정이다. /연합뉴스

美항모 ‘키 리졸브’ 참여...北 사태 대비

28일~내달 10일...관문점 확정기로 北에 통보

이달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군사연습 때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이 참여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휘소훈련(CPX)이다. 이와 동시에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이 시작돼 4월30일까지 지속된다. 미 항모의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참여는 2009년 미 3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9만6000t급)가 참가한 이후 2년 만이다. 올해 키 리졸브(2300명) 및 독수리(1만500명) 연습 때 해외미군과 주한 미군 1만2800명이 참가하며, 한국군은 동원예비군을 포함해 20여만명이

참여한다. 한미는 지난해 처음 공개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을 올해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북한의 정권교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연습도 실시한다. 북한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훈련 일정 등을 북측에 통보했다. 북측은 매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비난해왔다. /연합뉴스

바레인·예멘 등 중동 전역, 북아프리카까지 도미노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정권을 축출시킨 반(反)정부 시위 물결이 이웃 이란과 예멘, 바레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튀니지와 이집트 사태를 보며 민주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표했던 각국 정부는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 반정부 시위대를 마주하고 있다. <이란 아란 반정부시위>1명 사망 = 이란에서는 오랜 기간 억압을 받아온 아란 단체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테헤란에서는 14일(현지시간) 수만 명이 참가한 반(反)정부 시위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 테헤란 아자디 광장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수만명의 시민이 몰려들어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이란혁명 32주년이 되는

오는 18일에 추가 시위를 벌이겠다고 집회신청을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아니니파 갈등 바레인>20여명 사상 =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는 이날 수천명의 시위대가 정치개혁과 차별 철폐, 민생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위대가 모이기 전부터 헬리콥터를 띄워 면밀히 감시했고, 시위가 벌어지자 최루가스과 고무총탄 등을 발사하며 강경대응했다. 시위대도 돌을 던지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이에 맞섰다. 이번 시위는 바레인의 시아파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차별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바레인의 시아파 무슬림은 전체구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일부 정부 직책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으며 소수인 수니파 무슬림에 비해 생활수준도 낮은 편이다. <예멘, 32년 부패정권 퇴진 촉구> = 예멘에서는 32년간 장기집권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수도 사나에서는 시위대 3000여명이 사나대학 캠퍼스에서 시내 중심부 알-타호르 광장까지 행진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무바라크 다음은 알리” “오늘 이후 부패는 없다” 등 구호를 외쳤다. 전투경찰은 군용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고, 반정부 시위대로 돌팔매로 맞으면서 양측에서 5명이 부상했다. <알제리, 19년 비상사태 수일내 종결>=알제리에서 1992년부터 19년간 계속된 국가 비상사태가 수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모우라드 메를치 외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알제리 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도 이달초 “매우 가까운 장래”에 비상사태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제리 야당과 인권단체, 비공식 노동조로 구성된 ‘변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협의회(CNCD)’는 18일 수도 알제리에서 CNCD 회의를 연 다음 5월 1일’ 광장에서 반정부 행진을 시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 연극, 공연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다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몬스터' 스포츠 게임 천국

원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아쿠아 펜드

몬스터 페이스

외 다수

문의 전화

070 - 7581 - 7766

010 - 3549 - 9358

(주)쉐이커스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청소 및 건축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청소 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소독 용역

소독 및 바퀴벌레·개미·해충 박멸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대진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원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한드럼당 4천원~6천원 할인

▶ OK캐시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자산(법원) 큰사거리 지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